

사설

월드컵 4강, 일상에서의 해탈

한국 축구의 월드컵 4강 진출. 사람들은 이를 '6월의 전설'이라 불렀다. 2002 한·일 월드컵은 막을 내렸다. 아직 컷에는 그날의 희성이 생생하고 마음속엔 붉은 물결이 일렁이...

없는 찬사를 보냈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한국팀을 응원했다고 한다. 지난 6월, 우리는 '하나'가 됐다. 그리고 그 하나는 배타적 하나가 아니라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하나였다.

북한산 관통도로 재고해야

지난 3월에 이어 또 북한산 국립공원 내 관통터널 건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법회가 열렸다. 6월 26일 서울 도심 한복판 조계사에서 대회를 열고...

널 건설을 반대하는 불교계와 시민·종교단체의 뜻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노선검토위원회를 구성, 폭넓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노선을 다시 결정하자는 것이다.

'어울림과 나눔의 세상' 주제 교수불자대회 8월23~25일 백담사서

한국사회 새로운 비전제시

전국의 불자교수들이 한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갖는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8월 23~25일 인제 백담사에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전야제와 학술 발표 및 토론 외에도 신명 수련을 체험하는 등 심신수양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이번 대회는 2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4일 학술발표, 25일 암자 순례, 회향식 등으로 진행된다.

제·사회, 제3분과위는 과학기술·환경, 제4분과위는 교육·문화·예술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는 윤세원(인천대)·유승무(중앙승가대)·구승희(동국대)·정경연(홍익대)교수 등 저명학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조계종이 43개 불교대학을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하고 불교대학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비인가 불교교양대학 졸업자들의 포교사 응시자격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2001년까지 입학한 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만 포교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22개 불교교양대학들은 지난 6월 20일 한

비인가 불교대학 포교사 자격 '품수위' 서 자체 선발방안 강구

인터넷 홈페이지(www.pogyo.org)를 통해 "기존 포교사고시 응시자격이 유효부터는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전국 43개 불교교양대학 졸업자에 한해 부여되며, '신도전문교육기관' 부칙 제4조"에 의거해 기존 불교교양대학에서

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를 창립, '포교사고시 품수위원회'를 구성해 '불교교육능력 평가제'를 실시, 포교사를 선발하고 각 대학을 졸업한 포교사는 출신대학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불교교육단체연합회 김재일 공동대표 인터뷰 4면> 김재경 기자

태고종종 종단 소속 사찰에 모바일 포교프로그램을 설치, 전자신도증에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된 '국민불자카드'를 이달부터 발급한다.

교프로그램과 MS카드리더기 등 전산정보를 무상 지원한다. 국민불자카드는 상황모바일 포교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존의 사찰 재무관리와 신도 관리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

태고종, 신용카드기능 전자신도증 발급

상황 모바일과 연계 재무·신도 전산관리

6월 26일 성북구 총무원사에서 (주)국민신용카드사와 (주)지우커뮤니케이션과 함께 '국민불자카드' 제휴계약을 체결, 전자신도증에 신용카드 기능을 추가했다.

도의 법회출석, 축원, 위패, 등표 등의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태고종은 '국민불자카드' 발급자의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단의 포교활동 기금으로 기부받을 수 있게 됐다.

'탈북자대상 포교망 구축사업' 등 9단체

올 공모사업 지원대상 선정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6월 27일 2002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공모사업 지원대상 9개 단체를 선정했다. 이번 프로그램 공모사업에는 총 17개 단체가 참가했다.

프로그램(광림사 연화복지원)이다. 또 '나눔의집과 함께하는 Peace Road(나눔의집)' '사찰환경관리 지침서 개발에 관한 연구(사찰환경연구회)' '외국인노동자 문화충돌과 적응에 관한 실태조사(경북불교)' '시각장애인 무료급식(대광명인불자회)' '저소득 가정 아동의 신라불교문화 체험활동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신라문화원)' 등이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됐다.

포교사 455명 자격갱신 조계종 포교사단 발표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6월 26일 포교사 자격갱신 대상자 1242명중 455명이 포교사 자격을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갱신은 2000년 10월 31일 제정 공포된 '일반 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에 의해 자격갱신 대상자 가운데, 포교사단 단원에 한해서 자격 갱신이 이루어졌다.

불국사·수덕사 승가대학 인가

파계사 승가대는 유·사 해정스님, 쌍계사 중강 무공스님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교육원은 7월1일부터 9월 31일까지 동국대, 중앙승가대, 강원, 기초선원 등 기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예비승(사미·사미니)에 대해 의제 특별지도·감독을 시행키로 하고, 규정에 맞는 의제를 적용하지 않은 예비승에 대해서는 1년간 비구계 수지 자격을 유보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제23기 행자교육원

8월25일~9월16일 조계종 제23기 행자교육원이 8월25일부터 9월16일까지 23일간 열린다. 그러나 개인 장소는 추후 결정된다.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는 6월26일 오후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8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3기 행자교육원 일정 및 교과목 등을 확정했다. 교과목은 사미·사미니 율의, 부처님 생애, 초발심 자경문, 위의 문 등 모두 12개 과목이다.

'현대' 만평 김영민. A cartoon illustration showing a person looking at a large, stylized character '정' (truth) and '화' (peace), with a speech bubble saying '정화' (purification). Below it, the text reads '사찰정보화로 중생구제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주필: 김명규,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ll.co.kr, www.yostamun.com.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신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 등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언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온 겨레와 함께,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을 진심으로 경축합니다. - 미수타 가족일동.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공단 74-20 전화 031-792-8867~8